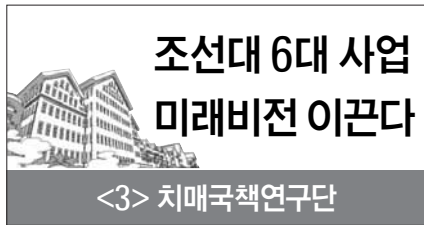


7천건 분석 한국인 표준 뇌지도 완성 뇌 사진만 봐도 치매 예측할 수 있다



연구원 50명·연간 예산 30억
조기진단 SW 개발...해의 관심
치매 분야 대학 특성화 추진
“사회적 비용 10조 경감 기대”

치매는 한국인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기록된다. 정부가 국가적 대책을 추진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됐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인구 대비 치매환자 수는 2017년 70만명(9.9%)에서 오는 2050년에는 303만명으로 1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치매 관리비용도 GDP대비 지난 2015년 약 13조2000억원(0.9%)에서 오는 2050년 106조5000억원(3.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관 통계에 따르면 65세가 지나면 치매 유병률은 5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85세 이상 연령층의 약 30%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려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치매 환자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역설적으로 치매연구는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치매환자의 약 60%에서 70%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판정되지만,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치료 약물이 없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치매연구가 붐을 이루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들은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물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치매 조기진단 및 발병 예측이 중요하다고 본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은 2013년부터 3년간 7000건 이상 뇌 자기공명영상(MRI) 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인 표준 뇌지도도를 완성했다. 뇌지도 작성은 의료진이 객관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이 연구는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 최적화된 치매 예측 및 조기진단기술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를 모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은 지난해 10월 미국 알츠하이머병유전학컨소시움(ADGC)과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국책연구단은 중국치매학회와 '알츠하이머병 아시아 컨소시엄' 결성에 합의했다.

오고 있다.

치매국책 연구단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치매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현재 상용화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올 상반기에 조선대병원 등 5개 대형병원에 공급돼 테스트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책연구단이 개발한 치매 예측 진단 프로그램은 국제특허 출원하고 본격적인 치매 진단 의료기술 수출확대와 이를 위해

산업체는 물론 다른 연구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치매 분야 국제적 권위자인 '알츠하이머 앤 디멘시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치매 의료시장의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장인 이진호 교수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인 투자 의사를 밝히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수차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치매학회 회장이자 수도의과대학 신경과장인 짜교수를 만나 ‘알츠하이머병 아시아 컨소시

엄’ 결성에 합의했고 최초 행사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은 세계적인 치매연구의 네트워크 구축과 한국 치매연구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알츠하이머병유전학컨소시움(ADGC)과 국제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아시아 컨소시엄’ 결성에 합의하기도 했다.

강동원 총장은 “치매국책연구단이 추진하는 치매 진단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급속히 증가하는 치매 환자 및 잠재적 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효과적 치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10조원 이상의 치매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바이오·의료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치매연구에 집중 투자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치매 분야 대학 특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지난 2013년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기관으로 출범했다. 참여 연구원은 50여명이고 연간 운영예산은 30억원 안팎이다. 치매국책연구단 진행하고 있는 치매 예측기술 및 뇌지도 구축사업은 2019년 6월까지 미래부를 통해 국비 280억원을 포함해 총 307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학생활의 시작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최근 청솔관에서 신입생, 교직원,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조와 인생의 출발! 2018 입학식’을 개최했다. <송원대 제공>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주민센터 신청 접수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인 경우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엔 2018년 신설된 초·중·고 학생 교육용품비, 부교재비·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지원이 포함된다. 교육비로는 학

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한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이뤄진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증명서류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시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 문의의 광주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 062-380-4375~6, 전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061-260-0076.

/김형욱기자 khk@kwangju.co.kr

광주대, 국가전략산업 직종훈련 A등급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도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이수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광주대 산업인력교육원은 지난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국가 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기간전략직종훈련은 산업현장 인력수요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는 직종의 기술·기능훈련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을 돕는 사업이다.

광주대는 지난해 ‘디지털 스마트문화 웹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

영해 2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가운데 15명이 예코비, 케이투웬테크, 엠엔케이 등 지역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광주대는 훈련생들과 함께 기업에 방문하는 등 교육 후 취업알선에도 적극 나서 취업률을 높였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광주대 산업인력교육원 노만진 원장은 “광주대의 우수한 훈련과정, 시설, 훈련강사의 실력 등이 이번 평가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업훈련과정 품질향상 및 지역인재 양성에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투자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라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